

FIP-2015-0006 (통권 제216호, 2015. 07)

2015년 주요 교역·투자국 하반기 경기전망 조사결과

ISSUE
PAPER

Contents

<요 약>

I . 조사 취지, 개요	1
II . 조사결과	2
1. 2015년 하반기 경기전망	2
2. 현지 비즈니스 애로요인	3
3. 향후 한국의 수출회복 전망	3
4. 기업의 대정부 건의과제	4
III . 대외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5
<첨 부> 설문조사표	8

■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자료는 본회 국제경제팀 여정석 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771-0426 FAX : 02-6234-5299 E-mail :jsyeo@fki.or.kr

● ● ● 요약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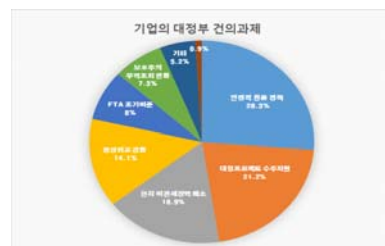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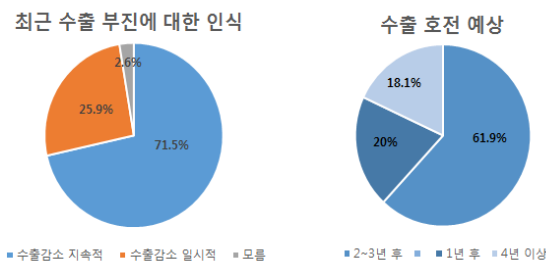
- 15개 교역국의 하반기 경기실사지수는 단순평균 95.7, 가중평균 98.3
 - 수출의 1/4 점유 중국(78.6)과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요 아세안 국가의 경기부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주요 교역국 2015년 하반기 경기전망 >

	2014년 교역비중 1)	BSI		2014년 교역비중 1)	BSI
일 본	8.0	150.0	홍 콩	6.7	83.3
베트남	5.5	146.9	러시아	2.5	78.9
인 도	3.2	128.6	중 국	35.9	78.6
미 국	17.4	127.3	태 국	1.9	75.0
미얀마	0.2	120	인도네시아	2.8	66.7
독 일	1.9	113.3	대 만	3.7	63.6
싱가포르	5.9	100.0	호 주	2.5	53.3
			말레이시아	1.9	50.0
전체평균	단순평균	-			95.7
	가중평균 2)	-			98.3

주: 1) 교역비중은 한국과 15개 국가의 전체 교역액 중 해당국 교역액 비중
 2) 가중평균은 교역비중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산출

- [현지 비즈니스 애로] 현지기업 경쟁력 상승과 중국기업의 공격적 마케팅이 최대 애로
 - 현지기업의 경쟁력 상승(22.8%)과 중국기업의 공격적 마케팅(19.9%), 인건비 상승(15.7%), 엔저에 따른 일본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11.8%), 유로화 약세(5.8%) 순으로 응답
- [수출 부진에 대한 견해 및 기업의 대정부 건의사항]



- 대외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전략국 타겟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 민관합동 해외 수주지원단 파견 확대, 외국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 등 수주 규모 확대와 질적 제고
 - [환율 안정화 조치 강화] 엔저 기조 지속,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과도한 환율변동성 확대에 대비
 - 최근 전경련 조사(4.3, 엔화약세로 기업 수출감소 및 채산성 악화 직면)에서 기업들은 이미 원-円 환율이 “감내 가능한 수준을 넘었다”라고 응답
 - [신흥국 보호무역주의 조치 적극 대응] 앞으로 금년 하반기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 모니터링, 공조활동 강화

I. 조사 취지, 개요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수출액이 금년 들어 5개월 연속 감소
 - 금년 5월까지 최대 수출국(수출비중 약 25%)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2.8% 감소하고, 주요 수출지역인 동남아와 유럽연합 수출도 각각 11.3%, 19.0%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5.7%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수출실적 추이 >

(단위: 억 달러, %)

	'14.5	6	7	8	9	10	11	12	'15.1	2	3	4	5	1-5
수출액	475.8	478.3	482.0	461.1	474.5	516.3	466.1	494.6	451.2	414.9	468.8	462.3	423.6	2,222.1
증감률	△1.5	2.4	5.2	△0.4	6.3	2.3	△2.7	3.1	△1.0	△3.3	△4.5	△8.0	△8.4	△5.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 2015년 5월 수출입 동향

- 이에 주요 20개 교역국* 해외법인장들이 체감하는 ①주재국 하반기 경기전망**, ②현지 애로요인, ③대정부 정책과제, ④향후 수출전망을 조사하여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운영 기초자료로 제공

* 대상국: 중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호주, 베트남, 홍콩, 독일, 러시아, 인니, 인도, 멕시코, 브라질, 영국, 태국, 캐나다, 말련, 네덜란드, 미얀마

* BSI = (긍정적 응답업체 수 - 부정적 응답업체 수) / 전체 응답업체 수 * 100 + 100
 지수가 100을 초과한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 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업체 수보다 많음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

□ 조사결과 개요

- 응답기업: 전경련 회원사 해외법인 1,380개 중 382개(응답률 27.7%)
- * 응답 수 10개 이하인 네덜란드, 브라질, 캐나다, 영국, 멕시코 5개국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 국가별 응답기업 수 >

국가	호주	네덜란드	대만	독일	러시아	말련	멕시코	미국	미얀마	베트남
응답 수	15	10	11	15	19	14	5	11	15	49
국가	브라질	싱가포르	영국	인도	인니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홍콩
응답 수	3	21	8	21	27	40	70	4	12	12

- 조사방법: 이메일, 전화 설문조사 병행
- 조사기간: '15.5.29~'15.6.15(약 2주)

Ⅱ. 조사결과

1. 2015년 하반기 경기전망

- 분석대상 15개 교역국의 하반기 BSI(경기실사지수)는 단순평균 95.7, 가중평균 98.3으로 나타나 하반기에도 대외여건은 악화 전망
- BRICs 중 인도만 호조: 중국(78.6), 러시아(78.9), 인도(128.6)
 - 인도는 모디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바탕으로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7.4%에 이어 올해 7.8%의 고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
 - 아세안 주요국 중 베트남만 호조: 말련(50), 인니(66.7), 태국(75), 베트남(146.9)
 -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 확대에 힘입어 금년도 당초 예상보다 0.4% 포인트 높은 6.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G7 국가는 모두 호조세: 일본(150), 독일(113.3), 미국(127.3)
 - 일본은 엔화 약세로 실적 개선, 1분기 대규모 임금인상으로 지난해 4월 소비세율 인상(5%→8%) 후 위축된 가계소비지출 회복세
 - 독일은 제조업 회복과 고용시장 개선에 따른 내수성장 확대로 독일 중앙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1.7%로 상향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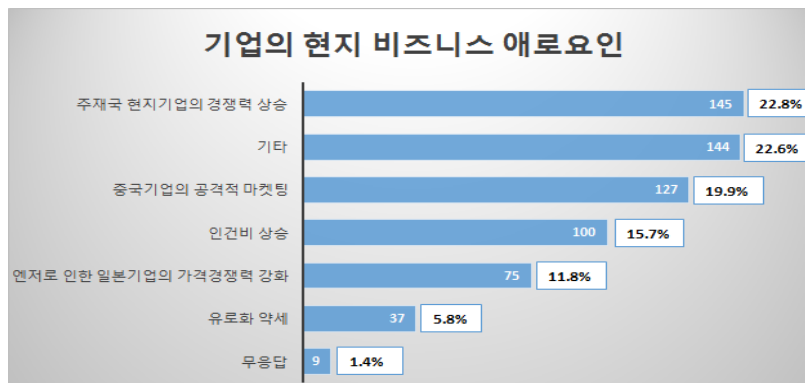
< 2015년 하반기 경기전망 >

국가명	2014년 교역비중*	BSI	15 1-5월 수출증가율
일 본	8.0	150.0	18.5%
베트남	5.5	146.9	24.3%
인 도	3.2	128.6	1.9%
미얀마	0.2	120.0	3.7%
미 국	17.4	127.3	5.2%
독 일	1.9	113.3	33.0%
싱가포르	5.9	100.0	47.3%
홍 콩	6.7	83.3	9.2%
러시아	2.5	78.9	64.6%
중 국	35.9	78.6	2.7%
태 국	1.9	75.0	13.6%
인도네시아	2.8	66.7	32.2%
대 만	3.7	63.6	15.2%
호 주	2.5	53.3	22.8%
말레이시아	1.9	50.0	17.2%
평균	단순평균	-	95.7
	가중평균*	-	98.3

주: *가중평균은 2014년 한국과 분석대상 15개국 간 전체교역 중 비중 가중치로 적용하여 산출

2. 현지 비즈니스 애로요인

- 현지기업 경쟁력 상승과 중국기업의 공격적 마케팅이 최대 비즈니스 애로
 - 현지기업의 경쟁력 상승(22.8%), 중국기업의 공격적 마케팅(19.9%)을 최대 애로 요인으로 응답하였으며, 인건비 상승(15.7%), 엔저에 따른 일본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11.8%), 유로화 약세(5.8%) 순으로 응답
 - 기타의견으로는 경쟁심화로 인한 수주가능 사업부족 및 기술력 부족, 적은 신규 사업 발굴 기회, 세계경제 침체, 경직된 노동시장, 유가 하락에 따른 투자환경 약화 등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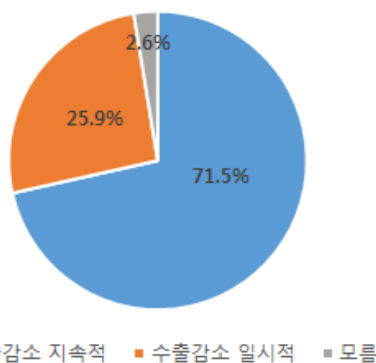


* 복수응답

3. 향후 한국의 수출회복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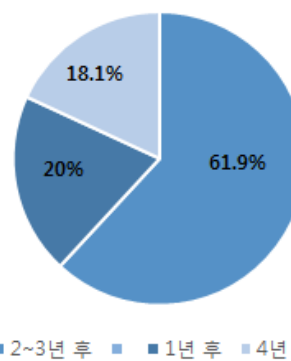
- 최근 수출감소가 일시적 현상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71.5%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응답
 - 수출 호전시기에 대해서는 2~3년 후(61.9%)로 응답. 1년 후(20%). 4년 이상(18.1%) 순으로 응답. 이는 보호무역주의 심화, 엔화·유로화 약세로 따른 한국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최근 수출 부진에 대한 인식



* 응답 해외법인 수: 382개

수출 호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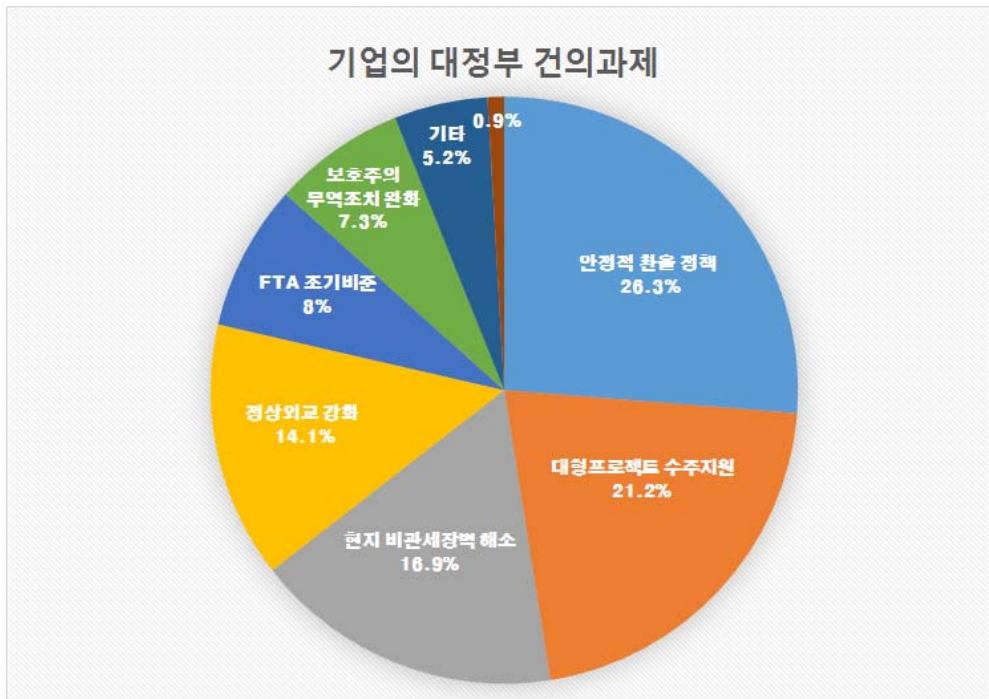
* 응답 해외법인 수: 315개

4. 기업의 대정부 건의과제

□ 안정적 환율정책,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정부에 주문

- 기업의 해외비즈니스 여건 개선과 관련한 대정부 정책과제로 안정적 환율정책 (26.3%),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21.2%), 현지 비관세장벽 해소(16.9%), 정상외교 강화(14.1%) 순으로 주문
- 기타의견으로 B2B, B2G 사업 수주 확대를 위한 정부 초청 행사 강화, 反한국 정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한류를 이용한 한국브랜드 이미지 제고, 재외 공관의 고급정보 공유, 외자기업 불평등 규제 해소 등을 꼽음

< 해외 비즈니스 관련하여 대정부 정책과제 >



※ 복수응답

Ⅲ. 대외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① 전략국 타겟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 정상외교 강화

- 민관합동 해외 수주지원단 파견 확대, 외국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 등 수주 규모 확대와 질적 제고
- 전통적 수주 강세지역인 중동 국가를 비롯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는 인도, 아세안 등 전략국가 타겟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 에너지, 교통, 도시 건설 등 융합대형화하는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2030년까지 57조 달러 규모 예상) 수주를 위해 일본과 같이 설계, 건설, SI, 엔지니어링, 금융 관련 기업, 정부 민관 합동 패키지형 사절단 파견
- * 지난해까지 시장개척, 프로젝트 수주를 정상외교의 결과, 대통령 방문국과의 교역은 전체 교역보다 2배 높았고(5.7% Vs 2.8%), 8개국 18개 총 502억 달러 프로젝트 수주로 연결

② (안정적 환율정책) 엔저 기조 지속,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과도한 환율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정부의 환율 안정화 조치 강화

- 이번 조사에서 해외법인장들이 제1순위로 안정적 환율 운영을 꼽은 만큼 정부에서는 신속적 외화관리방안 실행과 더불어 G20 차원에서 각국 통화정책에 대한 정책공조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 최근 전경련 조사(4.3, 엔화약세로 기업 수출감소 및 채산성 악화 직면)에서 기업들은 이미 원-円 환율이 “감내 가능한 수준을 넘었다”라고 응답
- * 거래 시 감내할 수 있는 원-엔 환율은 평균 924원으로 지난 4월 평균 원-엔 환율 908원을 상회. 업종별로 철강이 963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석유화학(956원), 기계(953원), 음식료(943원), 자동차 부품(935원), 조선·기자재(922원), 반도체(918원), 정보통신·가전(870원), 섬유(850원)

< 원화기준, 엔화, 유로화 가치 추이 (2015년) >



③ 신흥국의 비관세장벽,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한 적극 대응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기업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입규제가 급증하며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
- 철강,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세이프가드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외국 수입규제조치는 확대되고 오히려 새로운 보호수단으로 기술표준이나 인증 같은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추세
- 특히, 반덤핑, 세이프가드와 같은 전통적 수입규제 조치 이외에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식품검역이나 기술표준, 인증제도 같은 비관세장벽을 새로운 보호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
 - 2014년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26개국이 158건의 수입규제조치를 적용. 이 중 81.6%에 달하는 129건은 인도 등 신흥국에서 조치
- 앞으로 금년 하반기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 모니터링, 공조활동 강화

< 2015년 對韓 수입규제 예상품목 및 주요 비관세장벽 >

국가명	수입규제 예상품목	비관세장벽
남아공	자동차배터리: 반덤핑 조사 중	
대만	철강제품: 대만산업에 위협적인 對韓 수입제품 19개 중 16개 차지	
러시아	식품: 경제제재 동참 서방국가에서 제조된 식품 수입금지 조치	- 기계, 의료, 식품 분야 정부조달 시 외국기업 참여제한 및 자국기업 우대
말레이시아	철강제품: 對韓 무역적자 지속 증가/ 철강제품 3건 반덤핑 조사 중	
멕시코	섬유류	- 정부조달 시 자국 제품(기업)에 우선권 부여
미국	철강제품: 미 업계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추가제재 요구	- 산업피해조사 관련 예산 증액 - 농수산물식품류에 대한 검역 강화
베트남	자동차, 중고기계	- 의약품, 농산물에 대한 품질감시 및 검역 강화 - 덤핑혐의 업체 생산공장 현장실사
브라질	철강제품: 한국산 수입급증 예의주시	- 지우마 정부의 'Brasil Maior' 프로그램 통해 국내산업 보호정책 시행
아르헨티나	전자제품	- 모든 수입품 사전수입신고제 시행
인도	전기전자, 철강, 화학, 플라스틱: 한국산 수입 증가 품목 규제 예상	- 통관 시 규제적용 모호, 강제인증 품목 확대, 인증기관의 비효율적 업무절차

국가명	수입규제 예상품목	비관세장벽
인도네시아	철강, 화학, 휴대전화	- 모든 수입 휴대전화에 사치세 20% 부과 검토 중 - SNI 의무인증 품목 확대, 인니어 라벨링 규정 강화, 할랄인증 의무화
중국	식품, 전기전자	- 수입허가증관리화물목록 시행 - 환경기준, 식품위생 단속 강화
캐나다	철강제품	
태국	철강제품	
터키	휴대전화, 종이, 벽지류: 세이프가드 조사 중	- GMO 관련 규정 강화, 통관지연, 전수 검사 등
파키스탄	화학, 섬유제품: 반덤핑 재조사 가능성	
필리핀	신문용지: 세이프가드 조사 중	- 식품 라벨링 규제 강화
호주	철강 및 금속제품	
EU	철강제품, 자동차, 화학, 유아용 완구제품, 의료기기	- 화학물질 분류, 포장규정(CLP) 품목 확대, 에너지 라벨링 의무 부착 품목 확대, 경사용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EURO 6 적용

자료: KOTRA, 2014년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2015년 전망, 2015.03.25

〈첨 부〉 2015년 주요 교역국 하반기 경기전망 조사

기업체명		부 서		성 명		직 위	
주 재 국		Tel		Fax		E-mail	

■ 대상국: 20대 교역국(중국, 미국, 일본, 대만, 호주, 베트남, 독일,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영국, 태국, 홍콩, 네덜란드, 캐나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라질, 미얀마)
■ 연락처: 전경련 국제경제팀 여정석 연구원
(TEL. 02-3771-0426, FAX. 02-6234-5299, E-mail: jsyeo@fki.or.kr)

1. 주재국의 하반기 경기전망은 상반기 대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① 호전 ② 동일 ③ 악화

2. 주재국에서 귀사의 비즈니스 애로요인은 무엇입니까? () ※ 2개만 선택

- ① 중국기업의 공격적 마케팅
② 유로화 약세
③ 엔저로 인한 일본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
④ 주재국 현지기업의 경쟁력 상승 ⑤ 인건비 상승
⑥ 기타(자세히 기술) ()

3.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정부가 가장 힘써야 할 정책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2개만 선택

- ① 안정적 환율정책 ② 현지 비관세장벽 해소 ③ 보호주의 무역조치 완화
④ FTA 조기비준 ⑤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 ⑥ 정상외교 강화
⑦ 기타(자세히 기술) ()

4. 최근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십니까? (예, 아니오)

5. 수출부진은 언제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1년 후 ② 2년 후 ③ 3년 후 ④ 4년 이상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